

# 제14차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

## 〈회의개요〉

- ◆ 일 시 : 2015. 10. 27(화) 10:00~
- ◆ 장 소 :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(1동) 5층 회의실
- ◆ 참 석 : 강수미, 김성균, 김성복, 노승범  
윤태건, 이영수, 전항섭, 조유진, 홍순모
- ◆ 안 건 : 미술작품 7건 11작품(조각 11)  
[신규 10건]
- ◆ 결 과 : 승인 8작품, 재심 3작품

## □ 위원 발언 내용

### <위원장>

- 2015년 제1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 개최선언을 하겠습니다. 금일 심사위원 9명 중 9명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. 먼저 작품심의방법을 정하겠습니다. 첫째는 위원별로 개별 채점 후 토론방법과 공개토론 후 채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
- 거수로 결정하겠습니다. 그럼 가채점 후에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각자 보시면서 채점하시죠. 1번 작품부터 보겠습니다.
- 스텐레스 스틸을 레이저커팅을 해서 용접을 한 조각 같고, 특이사항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. 나비를 수만마리로 따서 조각을 해서 큐빅을 만드는 형식인데, 작품 크기나 안전성에도 문제

는 없는거 같습니다.

- 아파트 단지가 외부공간으로 열려있는 곳인데, 굳이 주차장에 그리고 상부에 설치했는지.. 다른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가 있을 거 같은데요. 차를 타고 가면서 보다보면 시야도 좁을 거 같습니다. 조명도 세 개나 놓았는데요. 장소선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
- 비슷한 의견인데요. 도로가 길게 있고, 좌측에 잘린 도로가 있는데요. 최소한 중앙광장 쪽이나 전면 도로쪽에 보행자 출입구 등으로 옮기는게 나을 거 같습니다. 그렇게 했을 경우 이 작품이 어울릴건가도 문제 일거 같습니다.
- 그런데 마땅한 공간이 있어 보이지 않습시다.
- 주변에 공원도 있고 많이 있는거 같은데요.
- 지금 작품을 구조물 위에 올려 놓았는데요. 아마 설치하는데에 서는 건물을 잘 이용하고 있는거 같은데 완전히 숨겨져 있는 위치에 조형물이 올려져 있는데요
- 오히려 안쓰는 공간에 설치가 되어도 거주자 입장에서 볼 때 베란다나 윗층에서 볼 때 조금 더 복잡적이고 공간을 상투적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다른 시도로 볼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. 야간에 소위 라이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점에서 공간과 건물 전체를 같이 고려하지 않았나 싶습니다.
- 다른 공간도 많이 있지만 오히려 열악한 공간에 놓아서 사실 나무도 못 심고 하는데 열악한 공간이 빛을 발하는게 있습니다. 좋은 발상같습니다.
- 여긴 아파트 동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좁은 장소 쓰지 않던 장소에다가 설치해서 획기적일 수도 있네요.

- 위치에 대한 호불호가 있는 작품같은데요. 저도 개인적으로는 위치가 좋다는 생각은 안드는데 그런 걸 떠나서 차량이 들어가는 출입구이기 때문에 차로 들어갈 때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확산판 같은 걸 설치해서 조명이 부드럽게 퍼지고 직접 눈에 안 들어오게 하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. 이게 직접 광원이 눈에 비치게 되어 있습니다.
- 굉장히 설득력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. 실제로 이 작품을 높이 사는 부분은 사용하지 않는 공간들이 작품을 통해서 새롭게 주민들과 같이 거주하는 형태가 될 수 있는데요. 실제로 차량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문제되는 조명은 안전상 고려하라고 요구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.
- 작품 자체에 문제는 없으니 조건부로 할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.
- 다양한 의견들이 나오긴 했는데 건축물에서 공공미술품을 설치하는 이유는 주민들뿐만 아니라 이 아파트의 건축물의 주변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 큼니다. 꼭 아파트 주민만을 위한다기 보다는 환경과의 조화가 중요합니다.
- 플랫폼 공간을 활용한 거는 적절하다고 봅니다. 잔디는 일반적인 공간이구요.
- 정리해보면 무난하다는 의견들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조명에 대한 것과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었고, 다른 의견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. 2번 작품 넘어가겠습니다.
- 금액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. 설치된 거에 비해 가격이 너무 센 거 같습니다.
- 금액과 산출근거가 있는데,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필요합니다. 특히 회화는 재료비가 들어가지 않는데, 캔버스와 물감비인데 가격이 고가로 책정되는 경우가 있고, 또 조각과 회화를 구분해

서 산출을 해야 할 필요가 있구요. 작가마다 가지고 있는 네임 밸류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.

- 제작비가 재료비, 인건비해서 1억이 드는데요. 이정도까지는 안된다고 봅니다. 제작비가 과한 편입니다.
- 여기서는 중간 커미션은 들어가 있지 않는데요.
- 변형된 피비우스 띠 같은데요.
- 이런 류의 작품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.
- 위치적으로는 적절하다 봅니다. 스케일도 3.3m라면 적절한 크기인거 같구요. 공공성에 있어 열린 공간에 크기도 괜찮은거 같습니다.
- 평범한 작품인데요. 예술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았을 때 작품가가 과도한 거 같습니다.
- 과도한 면 있다고 인정이 됩니다.
- 이 작품이 선정되어서 제작을 할 경우 작품 가격이 다운이 가능한가요?
- 안됩니다. 작품을 바꾸던지 크기를 확대하던지, 새로운 작품을 하던지 해야합니다.
- 이 작품은 색채만 바꿨지 모작 우려도 있는데요.
- 피비우스 띠가 모작 시비가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, 예전에도 해왔는데, 표절이라는 의견이 있지만 피비우스의 띠라서 안된다고 하기에는 억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위상수학의 도형이니 까 쓸 수는 있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. 너무 유사한 작품이 계속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독창성에 있어서는 문제제기가 계속 되기는 할 겁니다. 금액에 대해서는 잘 말씀해 주신 거 같습니다.

다. 상식적으로 3m는 큰 게 아닌데요. 매스가 약한 편인데요. 금액은 상당히 과하게 측정되기는 한 거 같습니다. 시에서 나온 산출 기준이 있으면 얘기가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.

- 실제로 이런 작품은 그런 모호한 지점을 노리고 나오게 됩니다. 누군가의 오리지날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평범하고 심의의 결격사유를 다 피해서 평범한 면으로 나오게 된 겁니다. 규모면에서 건축과 상징적으로 제시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.
- 그런 면에서 2번 작품과 5-1과 6-3도 비슷한 작품입니다.
- 학생들 조형 실습 작품과 비슷합니다.
- 회화작품은 대개 시장가가 있어서 금액대를 판단하면 되는데 조각은 재료비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, 시장에서 작가가 어떠한 작업을 해왔는지를 같이 판단해야 할 거 같습니다. 2번 작품의 작가는 누군지 연상이 안되어서 그 정도의 금액을 받을 만한 분인지를 판단하면 될 거 같고 5-1의 작가는 아마 정 모 작가일거 같은데 연배나 경력을 볼 때 높은 금액이라고 보기는 그렇구요. 이런 건 구분해서 봐야할 거 같습니다.
- 그럼 이런 사항들을 각자 판단하시고 3번 작품으로 넘어가시죠.
- 지난번 작품보다는 나아졌다고 봅니다.
- 주물을 키우고 파이프를 끌어놓으니까 시각적인 변화가 상당하네요.
- 지난 번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 같습니다.
- 4번 작품 넘어가겠습니다.
- 왜 이 위치에 선정되었는지 작업의 의도가 불분명해보입니다. 장소가 너무 작은 거 같아요. 이 작품이 들어가기에는 짜투리 땅이..

- 조각이 부조식으로 되어 버렸네요.
- 말씀하신 내용에 동의합니다. 작품이 매우 구체적 형태를 가지고 있어서 벽면에 붙어 있는 게 작품에도 좋지 않고 건축적인 측면에서도 공간으로 타당하지 않아 보입니다. 설치하는 것에 대해 제고를 하면 좋겠습니다.
- 위치는 적절치 않은데요. 그리고 이 작품이랑 거의 비슷한 작품이 곳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. 그냥 다른 곳에 제안했던 것을 그대로 가져다 논 느낌입니다.
- 다른 말씀 없으시면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 5-1번 작품입니다.
- 이런 작품이 곳곳에 세워지는 게 안정성에 있어서는 좋을 지 모르지만 다양성이라든지 독창성에 있어서는 떨어집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5-2번 작품입니다.
- 식물을 상징하는거 같구요. 낮은 곳에서 쪽쪽 뻗어나오는 형태가 앞의 작품보다는 좋은거 같습니다.
- 저는 시원한걸 떠나서 웬지 작품을 하다만 느낌이 듭니다.
- 조형적으로 보면 조금 왜소한 느낌인데요. 뭔가 부족한 거 같습니다.
- 보기에 따라서는 규모가 거대한 모뉴먼트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는데 혹시 괜찮다면 이 문구가 아닌 다른 문구로 바꾸면 어떨까. 너무 뻗은 문구인거 같아서.. 메시지가 중요한 작품일거 같은데요.
- 풀 모양인데... 난초의 뻗어나오는 느낌이 색다른 모습이네요. 괜찮은 작품인거 같습니다. 새로운 형태의 환경조형작업으로 보입니다.

- 크지 않은 건 정서적인 접근 때문인 거 같은데요.
- 작품제목이 굿모닝인데요. 식물의 생명력을 표현하면서 광장과 의 조화를 이루려고 한 거 같은데요. 작품성으로 봐서는 환경조형물로 적당한 거 같습니다.
- 다른 의견 없으시면 6-1번 작품 넘어가겠습니다.
- 사과를 벌레가 먹는 거 같은 데 무난한거 같습니다. 환경과의 조화라든지 접근성, 예술적인 부분 등이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무난한 작품인거 같습니다. 요즘엔 이런 트렌디한 작품이 많이 있는거 같습니다. 공모같은 데 이런 작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
- 그럼 6-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.
- 스텐레스 스틸과 돌을 중첩시켜서 물방울 같은 스텐레스 구가 달려있는데요. 개인적으로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. 나름 이야기를 가지고 있는 거 같습니다. 무난한 거 같습니다.
- 완전성도 무난하구요.
- 너무 일반적이지 않나요?
- 앞의 게 너무 일반적인게 많아서.. 그런거에 비해서는 더 나은 거 같습니다.
- 넘어가죠. 앞의 작품보다는 이 작품이 좀 더...
- 다음 작품 넘어가겠습니다. 6-3번입니다.
- 2번, 5-1, 6-3번은 같은 맥락으로 봐야할 거 같습니다.
- 이 조형물을 보면 아이들이 올라가서 만지거나 앉거나 여러 가지로 올라갈 수 있을거 같은데 구조적으로 상당히 취약해보입니다. 무게중심이 아이들이 올라갈 때 지탱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. 안전성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할 거 같습니다.

- 구조적 안전성이 굉장히 중요한데요. 5-1번 작품의 경우 구조물을 바닥에 고정시키는게 있는데요. 그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6-3 이 작품은 하중을 바닥면에서 고정시키는게 상대적으로 떨어져 보입니다. 다른 무엇보다도 하부에 매설하는 부분을 강화시키는 걸 요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. 위로 많이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가늘고 위로 높아져서 안전성이 약하다는 생각이 듭니다.
- 단가가 4,500밖에 안되어서 무리한 요구를 하기는 그렇고..
- 그럼 작품가를 높여야죠. 안전성이 중요한데요.
- 안전성은 당연히 하자보수 등이 들어있어서 도면에 구조적인 것이 나와야 하는데 따로 내역이 있습니까?
- 저희가 높이 5m이상 일 경우만 구조내역서를 권장사항으로 받고 있고 그 이하는 따로 받지 않습니다.
- 이 사항이 작가가 생각해서 설치도면에 표시를 해줘야지 여러 의견이 나오지 않는데
- 그런 측면이 아니라 서 있는 거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, 아이들이 올라갈 때가 문제입니다.
- 34페이지에 보면 접점부위가 두 군데가 나오는데요. 조금만 위치를 바꾸면 접점을 세 군데로 늘릴 수 있을 거 같은데요.
- 이 경우에는 조건부가 있으니까 조건부로 안전성을 확보해야 하는걸 제시하도록 하죠. 다음 작품 넘어가죠.
- 작품제작에 재료비에 대한 이야기가 평면과 입체가 다르고, 그 기준이 서울시가 모호한 거 같은데요. 그런 거를 정리를 해야 할 거 같습니다. 그림에서는 호단가가 있으면 입체에서는 중단 가격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적용되는 것도 아니고 회화의 재료



비를 산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데요. 여러 가지 대안을 찾아봐야 할 거 같습니다. 스텐레스 스틸이라는 재료로 크기만 키우고, 싼 재료로 공장에서 저렴하게 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. 그런 것들을 검토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.

- 이제는 재료에서 브론즈가 많이 사라졌네요.
- 아무래도 브론즈가 단가가 비싸니까 제작 기간도 길고 그래서죠.
- 종합적인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 같습니다. 2.4\*2인데 7,500이면 박한 가격은 아닌 거 같습니다. 이 정도면 큰 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. 재료나 난이도 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 같습니다.
- 7-2의 작품은 난이도도 있고 하는데 7-1작품은 시각적으로도 그런 게 안보이는거 같습니다. 언제부터인가 미술장식품이 아니라 미술작품으로 바뀌면서 자꾸 작품에 대해 크기로만 보다보니 싼 재료로 자꾸 쓰게 되는 거 같구요. 스텐레스 스틸이 친화적인 재료도 아니고, 공감을 일으키는 재료도 아닌데요. 싼 재료를 쓰려다 보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.
- 작품은 세월에 따라 변하기도 하고 세월의 때도 묻고 해야 좋은데..
- 재료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가다 보니 다른 재료로 가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들이 있습니다.
- 개인적으로 건축물에 들어가는 공공미술 작품이 사적인 공간 물론 로비가 사적인 공간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회화 중심의 미술품 설치하는 건 공공미술 제도 취지에 안 맞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. 이 건물의 다른 공공적인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쪽 로비에 설치하는 게 맞는건지 또 한가지는

최소한 한 로비에 두 개의 작품을 뒀을 때는 개인의 취향이 아니라 공공을 위한 기획이 들어가야 하지 않나 싶은데요. 두 개의 작품이 너무 다른 상태에서 비슷한 벽면에 설치하는게 취지 자체에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. 공공적 측면을 고려한 기획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 서울시에서 그런 기준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.

○○○ 다음 7-2번 작품 보시죠.

○○○ 스텐레스 스틸의 구를 절개해서 맞춰야하는 건데 맞출려면 틈 사이가 쉬운문제가 아닌데 작품으로 본다면 앞의 작품보다는 뒤의작품을 만드는 작가가 더 내공이 있는거 같습니다.

○○○ 작품 자체에 문제는 없는 거 같은데요.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야에 두 개 작품이 다 들어오고 너무 언밸런스 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.

○○○ 7번은 작가가 두명이죠? 다른 작가인거죠?

○○○ 호텔이다 보니 공공미술이 아니라 실내 인테리어 개념으로 가는 거 같습니다. 예술성이 아니라 인테리어를 하는 거라고 보여 주는 거 같습니다.

○○○ 다른 의견 없으시면 정리해주시죠.

○○○ 만약 한 작품이 떨어질 시 다른 작품에 어울리는 작품으로 설치를 제고하라는 의견을 달면 될 거 같습니다.

<위원장>

다른 의견 없으시면 각자 채점을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

<채점 진행>

## <심의결과 채점 집계 및 결과 발표>

### <위원장>

- 오늘은 11개 작품 중 3번과 4번, 7-1번 작품이 탈락되고 나머지는 모두 승인되었습니다. 결과에 이의 있으십니까? 결과에 이의 없으면 이것으로써 2015년 제14차 미술작품심의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